

“김해 예술인엔 좋은 무대, 주민엔 멋진 공연 선사”

■ 강동명 남광디시텍 대표

30년 가까이 車부품 회사 운영 복합문화공간 ‘엔엔드’ 만들어 뮤지컬 공연·미술 전시 등 소화



강동명 남광디시텍 대표가 복합문화공간 엔엔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명 건축과 교수와 협업을 통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됐죠. 유럽풍의 건물을 짓겠다는 일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강동명(60) 남광디시텍 대표의 얼굴에는 꿈을 이룬 ‘소년의 미소’가 햇살처럼 번져간다.

성공한 사업가인 강 대표는 최근 새로운 목표로 도전장을 던졌다. 뮤지컬 공연을 하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가 하면 영화도 상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운영이다.

그는 최근 경남 김해시 대정동 장유계곡에 지상 3층의 엔엔드(UNEND)라는 건물을 완공했다. 첫 삽을 뜨지 2년5개월 만의

하고, 푸른 하늘을 끌어들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적인 건물이라 비록 자연 풍경과 교감하도록 배치한 게 특징이다.

건물 내부도 물 흐르듯 방문객의 동선이 이어지도록 신경 썼다. 그는 “영화를 상영하는 무비라운지, 전시 공간이 있는 로비라운지 1층과 2층-2.5층의 캐주얼 카페가 편안하게 연결되도록 했다. 커피 한잔을 들고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음악도 들도록 공간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건물은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타실된 콘크리트가 외부로 노출되도록 해 독특한 조형미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마치 건물의 뼈대와 근육을 직접 보는 느낌이다.

무비라운지는 마니아를 위한 영화상영관이지만 회사 모임, 세미나 등의 업무를 여는 등 고정 용도의 공간이 아니라 무한변신 가능성이 있도록 했다. 엔엔드는 베이커리와 카페로 출발했지만 준비 작업을 마치는 오는 9월부터 공연장으로 얼굴을 바꾼다.

그는 “경남도 교원유스오케스트라와 함께 손잡고 공연을 연다. 뮤지컬 등 다양한 공

연을 소화하는 가야오페라단도 때맞춰 공연을 올린다”며 “무대는 건물 밖의 중정(中庭)이나 뒷산과 연결된 대단위 야외공연장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무대라는 판을 깔아주면 주인은 지역 예술인이 된다. 예술인에게 좋은 무대를, 부산-울산-경남 주민에게는 멋진 공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서 고생한다’며 주위로 부터 핀잔을 들었다. 10년 전부터 구상해 2015년부터 땅을 매입하며 꿈을 실행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유년기 시절 그는 건축가가 꿈이었다. 생업인 기계 설계는 자연스럽게 건축설계로 이어졌다. 본사 공장을 직접 설계했으며, 엔엔드 건축물 설계에도 참여할 정도로 수준급이 됐다.

그는 “우리 공간이 현대인이 목을 축이는 ‘쉼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 대표의 꿈에 대해 귀 기울이는 사이 창밖에는 빗줄기가 굽어지기 시작한다. 때맞춰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쇼팽의 녹턴이 가슴을 훈훈하게 데웠다.

글·사진=박동필기자 feel@kookje.co.kr



동아대, 日 대학·기업과 교류 확대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최근 일본을 방문, 대학 및 기업·기관들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사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이 총장은 KITA(한일무역협회) 도쿄지부, ㈜KAO, ㈜파라마운트 베드 등 현지 대기업 등과 함께 일본 기업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상 해외인턴십 추진 및 현지 취업 연계, 바이오·헬스케어·화장품 등 분야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교학원대학교는 2024년부터 매년 최대 5명의 교환학생을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했으며 가나자와대학교는 교환학생 교류 확대 및 단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지역연계 모범사례, 캠퍼스 공간 활용, 산업지구 연계 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견도 나눴다. 또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2024 한국유학박람회 참여와 태권도 등 한일 문화교류, 일본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지기자



동의대 대학원 송재희·이현지 씨 한국식품과학회 우수논문 1,2등

동의대학교 대학원 응용화학·식품공학과 석사과정 송재희 씨와 이현지 씨가 지난달 28-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회의 학술분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선별대회에서 각각 1등상과 2등상을 수상(사진)했다.

송재희 씨는 ‘LC-MS/MS를 이용한 다양한 공발효식품 내 단당류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식품분석분과 석사과정 1등을 차지했다. 이현지 씨는 ‘전통 매주 발효 과정에서 변형 간질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탄수화물분과 석사과정 2등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음식 혁신: 모두를 위한 미래로 가는 다리(Sustainable Food Innovation: A Bridge to the Future for All)’라는 주제로 아래 1200여건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최영지기자

본사소식

▶채광철 남해해양경찰청장

채창호 대성문 대표, 부산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후원

㈜대성문(대표이사 채창호)은 지난 11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 이하 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사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창호 대성문 대표이사 와 오은택 남구청장, 유경상 남구장애인복지관장과 박선옥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대성문에서 기탁한 성금은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가족 또는 주변관계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보양대체외소통 지원 사업에 전액 지원한다.

채창호 대성문 대표이사는 “무장애 도시를 꿈꾸는 남구와 함께 발달장애인 보양대체외소통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잘 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대성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대성문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부산사랑의열매는 발달장애인들이 무장애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최영지기자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글로벌 리더십&엑셀런스 어워드 수상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세계중소기업협회의(ICSB)가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십&엑셀런스 어워드’를 수상(사진)했다. 강 회장은 내년 여름 이 협회가 주최하는 베를린 국제학술대회에도 초청돼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연설한다.

ICSB 아이먼 타라비쉬 의장은 지난 8일 KNN 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도전 정신에서 출발해 빠른 혁신과 실행으로 큰 성장을 이뤄내고, 특히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과 이웃돕기 등 인간 존중과 나눔 경영, 사회 환원이라는 K-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 경영인”이라며 강 회장을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11일 경남 진주시와 ICSB가 공동 주최해 ‘인간 존중의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진주국제포럼에서도 부산대 윤리교육과 김홍수 교수가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 정신: 기회 포착에서 나눔 경영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1995년 설립된 세계중소기업협회의는 85개국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정부 관료 등 2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세계적 단체다. 유엔(UN)과의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분야 저명 학술지인 JSBM도 발간한다.

ICSB 아이먼 타라비쉬 의장, 원슬로 사

인트 회장 등과 함께 한국에 온 47개국 관계자 130여 명은 지난 8일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출범식에 이어 11-12일 진주국제포럼에 참가했다. K-기업가 정신재단은 삼성 LG GS 효성 넥센 등 많은 기업의 창업주를 배출한 진주의 기업가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한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각계 인사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유정환기자

윤대범 동일케미칼 대표, 그린노블클럽 가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11일 (주)동일케미칼 윤대범 대표이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사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윤대범 대표이사는 부산 79호, 전국 416호다.

윤 대표는 2009년부터 직원과 함께 회사 내 커피 자판기에 저금통을 설치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매년 구정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지원해 왔다. 2011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와 상사구정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캠페인 ‘1사1구회랑 갖기’ 사업을 통해 매일 5가정의 아동을 결연 후원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연말이 되면 결연 학생에게서 ‘나도 나중에 크면 꼭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편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나눔은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린노블클럽 가입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윤 대표는 1994년에 동일케미칼을 설립한 후 2002년부터는 고무 방충제 제작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항만시설과 석유화학 정유시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영지기자

제보전화 : (051)500-5145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 11일 연제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연산초등학교 일원에서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화남니농봉사단(단장 신화남 대한민국민명장)은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절영종합복지관(관장 서미라)에서 아·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HJ중공업(대표 유상철 대표)은 지난 11일 초복을 맞아 부산 영도조선소 노동자에게 수박 300여 통을 전달했다.



부산 서구 대신여자중학교 ‘늘푸른대신봉사단’은 최근 직접 만든 정성 부채를 홀로 어르신전달해 달라며 동대신2동에 기부했다.



백스코(대표이사 손수득)와 부산적십자사가 지난 11일 ESG 경영실천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문화 확산 등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부산 기장읍청년연합회(회장 오준근)는 지난 8일 청년회 장애아동 어린이 집을 대정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빛나농봉사단(회장 남길동)은 지난 8일 부산 사하구 하단 1, 2동의 주거 취약계층 30세대에 전기·소방·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